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과 조선인학살 사건을 둘러싼 일본문학자의 인식 연구*

조미경**
cho9631cho@naver.com

<目次>

- | | |
|---------------------------|----------------------------------|
| 1. 서론 | 4. 간토대지진 당시의 유언비어와 조선인학살을 둘러싼 기억 |
| 2. 간토대지진과 문학자의 조선인학살사건 인식 | |
| 3. 진재문학 작품 속의 조선인학살사건 인식 | 5. 결론 |

主題語: 재해문학(Disaster Literature), 간토대지진(Great Kanto Earthquake), 조선인학살사건(Korean Massacre Incidents), 지진과 문학(Earthquake and Literature), 일본문학자의 인식(Recognition of Japanese Writers)

1. 서론

1923년 9월 28일 정오를 앞둔 시간에 도쿄(東京)를 비롯하여 수도권이 위치한 간토(關東)지방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이 일대에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근대기 이후 일본의 가장 큰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는 ‘간토대지진’이었다. 이 지진은 단지 진도(震度)의 규모도 대단하였지만 마침 불고 있었던 바람을 타고 도쿄와 수도권 전체가 거대한 화재에 휩싸여 도시 전역이 불에 타고 이로 인해 10만 5천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초래되었으며, 도쿄는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천재(天災)로부터 시작된 이 간토대지진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다양한 형태의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자경단(自警團)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일본에 건너와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대규모로 살해하는 이른바 ‘조선인학살사건’으로 발전해 버린다. 간토대지진 당시 불법적인 학살사건은 단지 조선인에 그치지 않았다.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히라사와 게이시치(平澤七七) 등 무정부주의자와 사회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617)

**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주의자들을 각각 헌병대와 기병대에서 불법적으로 난폭하게 살해한 ‘아마카스(甘粕)사건’, ‘가메이도(亀戸)사건’, 그리고 중국인학살사건 등 다양한 형태의 학살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¹⁾ 따라서 간토대지진 당시 일어난 이들 사건은 자연재해가 일으킨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상박해와 탄압, 그리고 이민족 학살까지 이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메이지산리쿠(明治三陸)지진과 쓰나미, 한산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3.11 동일본 대지진 등 일본에서 일어난 여타의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간토대지진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문학자들은 이들 재해의 비참한 상황을 기록하거나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진재(震災)문학’을 남기고 있다. 나아가 몇몇 작가를 중심으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을 형상화한 여러 편의 문학작품과 평론이 창작되기도 하였다. 이들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을 대상으로 한 일본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즉,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분석한 이지형의 논문²⁾, 에구치칸(江口渙)의 「차안에서 생긴 일(車中の出来事)」을 분석한 강소영의 연구³⁾,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의 「숲 속(森の中)」을 고찰한 이상복의 연구⁴⁾, 사토하루오(佐藤春夫)의 「마조(魔鳥)」를 둘러싼 모리사키 미쓰코(森崎光子)의 연구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간토대지진 이후 다양한 문학작품에 나타난 ‘유언비어’와 ‘조선인상’의 고찰을 통해 부정적인 조선인관과 국가권력의 폭력 문제를 분석한 허석의 연구⁶⁾는 다수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들 문학 작품에 그려져 있는 유언비어를 중심으로 조선인상을 고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간토대지진과 조선인학살을 다룬 일본문학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체적으로 주로 개별 작품 연구나 작품 해석에 그치고 있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일본문학자의 인식과 문학의 역할이라는 영역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간토대지진과 조선인학살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문학자들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보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간토대지진 이후 조선인학살사건을 중심 테마로 설정한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이들 문학자들

1)鈴木淳(2016)『関東大震災』講談社, pp.173-184

2)이지형(2005)「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1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91-114

3)강소영(2012)「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을 향한 시선-에구치칸(江口渙)「차안에서 생긴 일(車中の出来事)」의 야마토다마시이(大和魂)」『일어일문학연구』제3권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pp.275-291

4)이상복(2018)「관동대지진과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숲 속」을 중심으로」『비교일본학』제42집, pp.293-308

5)森崎光子(2003)「佐藤春夫「魔鳥」論—朝鮮人虐殺事件との関連を中心に」『近代文学論創』第6巻, pp.1-17

6)허석(2015)「근대일본문학에 나타난 자연재해와 그 폭력성의 연원에 대한 연구-關東大地震과 朝鮮人虐殺事件을 中心으로」『일본어문학』제65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383-405

이 남긴 다양한 형태의 에세이나 평론도 더불어 분석함으로써 이들 사건에 대한 문학자의 위치와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지식인과 문학자들이 에세이나 평론에서 이들 사건을 어떻게 포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간토대지진 진재문학 작품에 그려진 조선인학살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일본문학자들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그다지 다루어진 적이 없는 『긴자부흥(銀座復興)』이라는 작품과 비평을 통해 조선인학살사건의 기억이 어떻게 소거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간토대지진 당시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었던 ‘진재문학’의 외연을 보다 확장함과 더불어 일본문학과 조선인학살사건의 관련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실의 실제사건에 대한 문학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간토대지진과 문학자의 조선인학살사건 인식

조선인학살사건은 간토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는다든가, 무장한 조선인이 무리를 지어 습격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는 하는 다양한 유언비어가 커다란 기폭제가 되어, 자정단이나 재향군인회 등이 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그런데 조선인을 둘러싼 이러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는 대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쿄의 대부분 지역에서 화재를 피하려는 피난민이 넘쳐나는 혼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 이러한 유언비어가 대지진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유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진 이후 “15시를 지나고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의 방화가 많다’라고 하는 유언(流言)이 나돌아, 야반(夜半)부터는 구로다구(黒田区) 구 옷츠기바시(四ツ木橋) 등에서 조선인의 학살이 시작되었다.”⁷⁾는 기록을 보면 대지진과 이로 인한 대화재와 더불어 거의 동시적으로 유언비어가 확산하고 조선인학살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언비어가 빠르게 확산된 요인은 무엇이며, 조선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조선인학살사건 관련 자료를 오랫동안 치밀하게 조사해 온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다양한 사료와 증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7) 西崎雅夫(2016)『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記録』現代書館、p.1

이러한 유언이 관민 어느 쪽에서 발생했는지는 확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체는 이미 9월 1일 저녁때부터 경찰관 내지 경찰서가 유언(流言)을 흘리고, 2일에는 내무성 경보국장까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그 오인정보를 전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더구나 경찰관은 민중에 대해 조선인학살을 용인하는 발언마저 하였다.⁸⁾

아마도 쇼지는 실제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는 일본의 경찰을 비롯한 관헌들이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에 대한 폭력행사와 학살을 방관하는 태도마저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당시 사회주의자에 대한 유언비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경찰과 군인들의 학살과 유사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은 다분히 국가폭력이라는 양상마저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군부나 경찰이 단지 유언비어를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학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⁹⁾ 한편, 당시 일본인 자경단이나 재향군인회 등이 자행한 조선인 폭력은 이러한 유언비어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즉 폭력적이고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는 조선인을 위협시하려는 ‘불령선인(不逞鮮人)’ 관련 담론과 크게 연관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과 문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문학자들의 반응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다이쇼(大正)기 데모크라시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와 군사평론가인 미즈노 히로노리(水野広徳)가 『중앙공론(中央公論)』 지상에 실은 다음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 더욱 나아가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의 태도를 깊이 반성해 볼 필요를 느낀다. 우리들은 평소 조선인을 동생뻘이라고 한다. 서로 상호하여 동양의 문화개발을 위해 진력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그런데 하루아침의 유언비어에 혹하여 무해한 동생뻘에게 폭학(暴虐)한 민족적 증오를 가지고 대함은 언어도단의 일대 수치가 아닌가.¹⁰⁾
- 관헌을 등에 업고 저급한 일군인의 독단에 의해 헌법규정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무저항의 인간을 살육하는 것과 같은 일은 문명 법치의 나라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대죄악이며 국민의 삶은 안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오스기(大杉)의 무정부주의를 국가에 해가 있다고 여겨, 이를

8) 山田昭次(2011)『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創史社、p.57

9) 홍진희(1998)『관동보고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나무와 숲, pp.97-168 참조

10) 吉野作造(1923.11)「朝鮮人虐殺事件に就いて」『中央公論』、p.175

모살한 아마카스(甘粕) 모(某)는 그 스스로가 국가를 무시한 무정부주의의 실행자라고 할 수 있다.¹¹⁾

위 인용문 중 첫 번째 인용문은 도쿄제국대학 교수로서 다이쇼기 데모크라시운동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한 요시노 사쿠조가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요시노 사쿠조는 근거도 없이 자경단이 조선인학살을 자행한 사건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며 이를 일본민족의 커다란 수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을 일본인의 도덕적 문제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교육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더구나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조선인학살사건을 단순한 폭력 이상의 문제, 즉 ‘조선통치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함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공론』의 같은 호에 실린 해군출신의 군사평론가 미즈노 히로노리가 쓴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군경에 의해 자행된 ‘아마카스(甘粕)사건’, ‘가메이도(亀戸)사건’과 조선인학살 사건을 언급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적으로 무정부주의자 오스기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군인에 의한 일그러진 국가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당시 불법적인 학살사건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적인 문제제기와 궤를 같이 하듯이 일본문학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조선인학살사건을 둘러싼 문학자의 발언으로 빠뜨릴 수 없는 작가가 바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이다. 간토대지진과 관련하여 몇 편의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1923년 10월에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대진잡기(大震雜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계엄령이 발포된 이후, 나는 (중략) 기쿠치와 잡담을 교환하고 있었다. (중략) 그러는 동안에 나는 대화재의 원인은 ○○○○○○○○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기쿠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거짓말이야, 자네”라고 일갈하였다. (중략) 그러나 그러는 김에 한 번 더 어쨌든 ○○○○는 불세비키의 앞잡이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기쿠치는 이번에도 눈썹을 치켜 올리며 “거짓말이야, 자네. 그런 말은”이라며 심하게 꾸짖었다. (중략) 내 소견에 따르면 선량한 시민이란 불세비키와 ○○○○의 음모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만약에 믿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적어도 믿고 있는 듯한 표정을 꾸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야만스런 기쿠치 간은 믿고 있지도 않거니와 믿으려는 흉내도 내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히 선량한 시민의 자격을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¹²⁾

11) 水野広徳(1923.11)「大杉殺害と軍人思想」『中央公論』、pp.65-66

12) 芥川龍之介(1996)「大震雜記」(琴乗洞編『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 2』綠蔭書房, p.45. 초출지와 초출년은 『中央公論』(1923.10.)

이 글은 간토대지진 이후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그의 친우인 기쿠치 간(菊池寛)과 더불어 유언비어와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면을 적은 글이다. 이곳에서 복자(伏字)로 처리된 부분은 ‘불령선인’ 또는 ‘선인(鮮人)’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유언비어로 확산되고 있었던 도쿄의 대화재의 원인이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탓이라는 의견에 대해, 그리고 조선인이 불세비키의 앞잡이라는 견해를 아쿠타가와가 제시하고 있지만 기쿠치는 매번 거짓말이라고 대답하며 아쿠타가와를 힐책하고 있다. 여기서는 ‘선량한 시민’과 ‘야만스런 기쿠치’라는 말이 시사하고 있듯이 기쿠치 간의 의견을 통해 당시 황황하고 있었던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은유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굳이 선량한 시민이라면 ‘불세비키와 ○○○○의 음모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거나 아니면 믿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야 한다는 말은 이것이 강요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 비로소 선량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은 당시 사회주의자나 조선인에게 가해진 탄압과 폭행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논리에 의해 자행된 것인지를 매우 문학적으로 날카롭게 포착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이외에도 간토대지진 당시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학살과 폭력에 대해서 당시 문학자들은 이를 날카롭게 포착하여 비난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아래의 일본의 대표적인 아동문학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동문학작가인 오가와 미메이(小川未明)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들은, 일시 저 사회 혼란기에 즈음하여, 모두가 취한 태도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것은 동포로 인해, 유감이 없었을까? 과연, 인류에 대해 봉건시대보다 훨씬 나아간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성에 의해 불안과 미망(迷妄)에 홀롱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자경단(自警團) 사건, 주의자(主義者) 학살, 그것들에 의해 우리들은 매우 의문을 낳기에 이른 것입니다. (중략) 적어도, 이 정도까지 잔학한 일이 우리들 형제의 손에 의해, 만약에 하루아침의 사변에 조우하여 정신이 흥분하였다면, 언제라도 자행될 염려가 있다라고, 평소 서로 얼굴을 맞이하여 웃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동안에 생각하기라도 했을까요?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당혹스런 나머지 기이한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¹³⁾

이 인용문에서 오가와 미메이는 간토대지진 당시 자경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인학살 사건, 나아가 일본인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가 헌병대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아마카스 사건’과 ‘가메이도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본인과 일본문명 전반에 대해 회의의 시선과 더불어

13) 小川未明(2003)『思想の曙光に明けんとする大正一三年』『編年体大正文学全集』第一三卷、ゆまに書房、p.498. 초출지와 초출년은 『中央公論』(1924.1)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이러한 잔혹한 사건이 자행되는 현대 일본문명이 과연 봉건시대보다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건이 대지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번의 경험에서 본다면 언제든 발현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당혹’함과 ‘기이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이성’, ‘도덕’, ‘사상’의 면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문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피력하며 이는 곧 이 시기 일본이 받아들인 문화가 단지 물심중심의 문화이자 모방적 문화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리고 시인이자 소설가인 나가타 히데오(長田秀雄)도 간토대지진이 있었던 1923을 보내고 새로운 해인 1924년을 맞이한 감상을 쓰면서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폐허로부터 도교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저 처참한 대지진의 인상은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다. 대지진, 큰 불, 조선인 학살로 서로 연이어 나타난 천변(天變)과 인심의 혼란(惑亂)은 역사상 드물게 보는 바이다”라는 글을 통해 지진과 화재라는 재난, 그리고 조선인학살로 이어지는 ‘인심의 혼란’을 비판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율(戰慄)’ 속에서 지내던 느낌과 이 모든 일을 ‘혼에 새겨져 부착된 오점’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며 “과거의 인습인, 메이지 이래의 번역(翻譯)적 문화로부터 벗어나”¹⁴⁾ 새로운 문화가 싹트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간토대지진이라는 미증유의 대재난 속에서 연이어 일어난 진보적 지식인의 살해, 그리고 조선인학살이라는 사건에 대해 일본문학자들은 비판적으로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었다. 즉 이들 사건이 일본 근대문명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일본문화가 진보하고 있는지 근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당시 근대화를 서두르던 일본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있었다.

3. 진재문학 작품 속의 조선인학살사건 인식

간토대지진 이후 이 미증유의 자연재해를 다룬 다량의 문학작품과 에세이, 평론이 만들어졌지만,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보도금지가 해제된 뒤에는 많은 작가들이 이 조선인학살 문제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예를 들면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14) 長田秀雄(2003)「大正一二年を送りて大正一三年を迎ふる辞」『編年体大正文学全集』第一三卷、ゆまに書房、pp.495-497. 초출지와 초출년은 『中央公論』(1924.1)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1923.10), 도쿠다 슈세이(徳田秋声)의 「파이어건(ファイアガン)」(1923.11), 에구치 간(江口渙)의 「차 안에서 생긴 일(車中の出来事)」(1923.12),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의 「해골의 무도(骸骨の舞跳)」(1924.4), 옛쥬야 리이치(越中谷利一)의 「일병졸의 진재수기(一兵卒の震災手記)」(1927.9) 등 다수의 문학작품이 창작되어 조선인학살 문제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문학 작품들은 조선인학살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포착하고 이 학살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달에 짖는다(月に吠える)」의 작가이자 다이쇼기에 근대시를 완성시킨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의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한다.

조선인들이 무수히 살해당해,
그 피가 백리(百里) 사이에 이어졌다.
나는 분노하며 바라본다. 이 무슨 잔학한 일인가.¹⁵⁾

이 시는 1924년 2월에 발표된 매우 짧은 시이지만,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하기와라 사쿠타로는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무수하게 학살당한 점, 그래서 조선인들이 흘린 피가 백리 사이에도 이어질 정도로 대량 학살을 당한 점을 들추어내며,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학한 것이라며 ‘분노’의 심정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렇듯이 당시 일본문학자들은 ‘분노’라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특히 소설 장르에서는 이 학살사건의 전모가 다양한 각도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다음 인용문은 간토대지진 당시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 속에서 동원된 병사의 시점에서 그린 옛쥬야 리이치(越中谷利一)의 「일병졸의 진재수기(一兵卒の震災手記)」 속의 한 장면이다.

아아, 어째서 xxxx할 수 있었던 것인가?——자신 앞에 비틀비틀 거리며 양손을 모아 무릎을 꿇은 그들, xxxx, 나라를 쫓겨나 xx라고 모욕과 학대의 철폐(鐵鞭)으로 끊임없이 생존을 거부당하며 유랑하여, 지금 먹을 식량 없고 잠잘 집 없는—— 그들을, 어째서 이러한 xxxxxxxx 공격할 수 있었는가. (중략)

“비겁자!” 그는 이렇게 외치고 스스로를 격렬하게 책망하는 수밖에 없었다.¹⁶⁾

15) 萩原朔太郎「近日所感」(琴秉洞編(1996)『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 2』綠蔭書房), p.285. 초출지와 초출년은 『現代』(1924.2.)

16) 越中谷利一「一兵卒の震災手記」(琴秉洞編(1996)『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2』綠蔭書房), p.105. 초출지와 초출년은 『解放』(1927.9.)

이 작품은 프롤레타리아 작가인 엣쥬야 리이치가 간토대지진 당시 실제 나라시노(習志野) 기병연대에 근무한 경험에 토대하여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동원된 기병부대의 활동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간토대지진을 당하여 형과 두 동생의 생존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모의 편지를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근심에 휩싸여 있었지만, 계엄령 이후 매일 같은 출동 명령으로 형제의 안부 확인을 위해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대지진 이후 그는 사회주의자와 조선인 진압 출동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확산되고 있었던 유언비어인 조선인의 ‘내습(來襲)’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주인공이 속한 기병부대가 출동하여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린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다.

위 인용부분에서 주인공은 실제 도망치는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작전에 동원되어 조선인들이 압도적인 군대의 무력 앞에 살해당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들에 대해 무한한 동정을 표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학살은 자경단이나 재향군인회 등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실제 군부대나 경찰도 상당수 자경단원에게 조선인 살해를 지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다양한 증언과 사료가 나오고 있다.¹⁷⁾ 이 작품은 당시 계엄령 하에 수도권의 질서를 담당하였던 군부대가 조선인 학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 구체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쫓겨나 일본에서 갖은 모욕과 학대를 받으며 먹을 것과 잠잘 곳조차 없는 조선인들이 진압에 나선 군인들 앞에서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고 왜 힘없는 조선인들을 공격하고 살해해야 하는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이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을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을 ‘비겁자’라고 책망하는 것 외에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병졸의 진재수기」는 조선인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분노와 이에 저항할 수 없는 한 병졸의 무력감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24년 4월에 『연극신조(演劇新潮)』에 발표된 희곡작가이자 소설가인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의 「해골의 무도(骸骨の舞踏)」는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물론, 학살의 계기가 되었던, 조선인들이 습격을 한다든가,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을 넣는다는 유언비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잘 들어나 있다.

- 청년은 조선인의 손을 잡아 끌어안는 것처럼 하며,(중략)
- 이런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 우물에 독을 집어넣거나 하겠는가?

17) 강덕상 지음, 김동수, 박수철 옮김(2005)『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역사비평사, pp.205-307

이 사람에게도 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자네들이 아니다.¹⁸⁾

- 나는 일본인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좀 더 차분한 인간다운 국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일로 완전히 배신당해 버렸습니다. 이 절망은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p.7)

이 작품은 간토대지진이 일어난 도쿄를 피하여 피난 행령에 오른 청년과 어느 노인이 수도로부터 150리 정도 거리가 있는 M역에서 겪은 사건을 그린 희곡작품이다. 형제자매들이 사는 아오모리(青森)로 가려는 청년은 이 M역에서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홋카이도(北海道)를 향해 피난가려고 하는 노인을 만나는데, 이 노인은 조선인이 습격해 온다는 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은 노인에게 조선인 습격 소문은 진실이 아니라 말하며,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이 오히려 조선인에게 습격을 가하고 공격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의 행동을 혐오한다고 말하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나아가 새벽 2시가 지날 무렵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사단(師團)으로 밀려온다는 소문’(p.16)이 나돌고, 그러한 와중에 조선인을 색출하기 위해 이 역에 피난민과 부상자를 위해 설치한 구호텐트에 자경단과 재향군인들이 밀어닥친다. 첫 번째 인용문은 주인공이 이들 자경단이 조선인이라고 지목한 한 청년을 비호하면서 자경단에게 던지는 문제제기이다.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는 조선인이 폭력의 원인이 된 유언비어의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결코 일본의 적이 될 수 없음을 언명하며, 조선인을 공격하는 일본인에 대해 ‘공평이가 편 죽은 도덕’만을 가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한다. 그는 조선인은 물론 일본인에 대해서도 무슨 ‘주의자’나 ‘위협인물’을 선별하여 공격하려는 일본인에 대해 결국 주문을 통해 그들은 ‘추악한 해골’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해골의 무도」라는 작품은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품고 있는 증오감과 적대의식, 나아가 조선인에 대한 폭력행사가 결국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인의 비도덕적인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토대지진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쿄를 떠난 피난열차에서 한 재향군인이 일본인 상인을 조선인이라고 모함하여 발생한 사건을 묘사한 에구치 간(江口渙)의 「차 안에서 생긴 일(車中の出来事)」이라는 단편소설을 살펴보도록 한다.

“난 조선인이 아냐, 조선인이 아냐.” (중략) 이윽고 그 다음 역에 도착하였을 때, 그 남자는 플랫폼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소방대와 청년단, 재향군인단에게 인도되었다. 그리고 손과 옷깃

18) 秋田雨雀(1925)『骸骨の舞跳』叢文閣, pp.27-28. 초출지와 초출년은 『演劇新潮』(1924.4.)

가릴 것 없이 마구 잡혀 창문에서 밖으로 거꾸로 질질 끌려 나오자 어느 새인가 끔찍할 정도로 철권의 비를 흠뻑 맞았다.

“이봐, 그 따위 짓 그만둬, 멈춰 일본인이야, 일본인.” (중략)

나는 한 달 정도 지난 뒤 사이타마현(埼玉県)에서 학살사건이 공표되었을 때, 그 남자도 그 중 한 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방어하지 못하는 소수자를 다수의 무기와 힘으로 득의양양해서 학살한, 용감하고 충실한 「아마토다마시(大和魂)」에 대해, 진심으로 모멸과 증오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다. 각별히 그 우매와 비열과 무절제에 대해서.¹⁹⁾

「차 안에서 생긴 일(車中の出来事)」은 1920년을 전후하여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에구치 간이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에 1923년 12월 11일과 12일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지진이 일어나고 7일이 지난 9월 8일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 지방으로 탈출하려는 기차 속의 피난행렬이 잘 그려져 있는데, 작품 모두에서부터 한 무리의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살해하는 장면과 조선인 사체를 보고 기차 속의 사람들이 몹시 흥분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있다. 이 당시 일본사회를 휩쓸고 있었던 조선인에 대한 일종의 집단적 군중심리라 할 수 있다.

그러던 와중에 가차 안에서 재향군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상인이 말싸움을 하다가 재향군인이 상인을 향해 조선인이 뻔뻔스럽게 기차 안에 몰래 들어와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소리를 듣고 기차 안 승객들은 모두 흥분하여 욕설을 가하고 그 다음 역에서 창문을 통해 여기저기 무자비하게 잡혀 끌려 나간다. 그는 자신이 조선인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었으며, 주인공도 일본인이라고 변호했지만 그는 플랫폼에서 자경단과 재향군인들로부터 사정없이 폭력을 당하고 피를 흘렸다. 실제 당시에 조선인이나 중국인으로 오인된 일본인도 학살당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작품은 한 재향군인이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상인을 조선인으로 거짓 고발한 상황과 정말 그가 조선인인지 정확한 판별도 하지 않고 무참하게 폭력을 가해 살해한 당시의 군중심리를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을 방어도 할 수 없는 소수자를 다수자가 무기와 힘으로 학살한 일본인과 ‘아마토다마시’에 대해 모멸감과 증오를 느낀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마토다마시’ 자체를 언급하며 일본정신 그 자체를 우매하고 비열하다고 비난하는 장면은 작자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모두 이유 없이 조선인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분노’라는 시각에서 포착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인이나 일본 문화의 비도덕적인 추악함으로 규정짓고 있다. 나아가 약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성

19) 江口渙「車中の出来事」『東京朝日新聞』(1923.12.11.-12.)

을 엄정하게 비난하며, 유언비어의 부당성이나 타민족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간토대지진 당시의 유언비어와 조선인학살을 둘러싼 기억

한편, 이러한 간토대지진이 가져다 온 상처와 피해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수도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되면서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3년 9월 27일 ‘제도부흥원(帝都復興院)’이 설치되어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총재로 취임하여 대지진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수도권의 제반시설을 부흥하고 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수도부흥계획이 입안·실행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대지진의 재건 과정에서 커다란 상처를 남겼던 조선인학살사건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장에서는 당시 자연재해와 화재 피해로부터 도쿄의 도심 복구와 재건을 다룬 『긴자부흥(銀座復興)』이라는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 널리 유포되었던 유언비어와 조선인학살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제도(帝都) 도쿄’의 부흥운동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에도(江戸)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도쿄의 시가형태를 탈바꿈하여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도로의 폭도 넓혀 근대적 도시에 적합한 간선도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도쿄의 하천운하에 부흥교량을 새로 설치하고 피난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원을 다수 만들었다.²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쿄는 간토대지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근대식 도시로 재탄생해 갔다. 한편, 이러한 부흥과 재건 사업의 결과로 ‘제도부흥’이 완성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1929년 10월 히비야(日比谷) 공원에서 ‘제도부흥전람회(帝都復興展覽會)’가 열리고, 1930년 3월 26일 황거(皇居) 내 니쥬바시(二重橋) 앞 광장에서 ‘제도부흥제(帝都復興祭)’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 ‘제도부흥기념장(帝都復興記念章)’이 만들어져 간토대지진으로 파괴된 수도권 부흥사업에 직간접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의 수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32년 4월에는 ‘부흥사무국’이 폐지되어 일련의 제도부흥사업이 공식적으로 일단락된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건 사업이 일단락되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부흥의 완성을 널리 알리는 시점에, 바로 미즈카미 다키타로(水上瀧太郎)는 재해의 산더미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긴자(銀座)가 현대적 상업도시로 재건되는 과정을 상세히 그린 『긴자부흥(銀

20) 정병호, 최가형 편저(2018) 『일본의 재난문화와 문화』 고려대 출판문화원, p.127 참조.

座復興』(『都新聞』, 1931.3.15-4.16)²¹⁾이라는 소설을 발표한다. 이 작품이 쓰인 시기로 보았을 때, 도쿄가 간토대지진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부흥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제도(帝都)를 구가하던 시대적 분위기가 그대로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긴자부흥』은 간토대지진과 화재 이후 “도쿄인의 궁지이자 시골사람들의 동경”²²⁾이었던 도쿄 도심부 대부분이 파괴되고 폐허만 남은 상황 속에서 긴자 한가운데에 판잣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점을 차리고 강건하게 부흥의 당위성을 주창하는 노구치(野口) 부부와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긴자부흥’을 외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고 도시가 활기를 찾아 긴자부흥이 실현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 내에서는 자연재해가 천박한 문화현상이나 외래문화를 쫓는 부박한 사회현상에 대해 하늘이 천벌을 내렸다는 천견론(天譴論), 제도부흥을 향한 지역과 국가의 아젠다, 부흥을 향한 국민의 의무 관념과 이를 따르지 않는 자를 비국민(非國民)으로 간주하는 담론 등 간토대지진 이후 1920년대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조선인학살사건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유언비어’를 둘러싼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 지금은 아직 우물에 독을 넣는 녀석이 있다든가, 시나가와(品川) 앞바다에 해적이 있다든가, 긴자에 도상강도가 나온다는가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인심이 안정되고 금융기관이 회복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앞을 다투어 틀림없이 원래대로 장사를 시작할 것이다. (p.63)
- “어 무엇이쥬?”
 둘은 안주인은 갈대밭 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겁난 듯한 목소리를 내었다.
 “뭔가 오고 있어서 제동이 하나 둘 셋.”
 노상강도가 오고 있어, 우물물에 독약을 처넣는 일꾼이 있어, 폭탄을 가지고 타다 남은 구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일당이 있다고 유언비어가 빈번한 때였다. 모두의 손에서 술잔이 밑으로 놓이고 긴장한 기분이 좁은 가옥 안을 점령하였다. (p.78)

이 작품에서는 도쿄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나아가 제도(帝都) 재건에 대한 희열을 주창하고 있는 소설이지만, 도시의 회복과 부흥을 구가하면 할수록 간토대지진의 상처는 잊혀 간다. 더구나 위에서 보듯이 ‘우물에 독을 넣는’다든가, ‘폭탄을 가지고 타다 남은 구역을 파괴’한다든가 하는 간토대지진 직후의 유언비에에 관한 기억도 그대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

21) 한편, 이 소설은 1944년 구보타 만타로(久保田万太郎)에 의해 동명(同名)의 희곡(『三田文学』, 1944년 4월-11월)으로 다시 쓰였으며, 패전의 폐허 속에서 1945년 전후 최초로 제국극장(帝國劇場)에서 공연되었다.

22) 水上瀧太郎(2012)『銀座復興』(岩波書店, p.8. 초출지와 초출년은 『都新聞』(1931.3.15-4.16)

데 이러한 유언비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폭력과 조선인학살의 문제는 작품 기술에서 누락되어 있다. 당시 황황하고 있었던 이러한 유언비어에 대한 기술은 존재하지만 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기억은 소거된 채로 도쿄의 부흥을 구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토대지진과 대화재로 인해 파괴된 도시는 이른바 ‘제도부흥’을 통해 또 다른 모던 도시로 부활하였지만, 간토대지진 당시 유언비어가 남겼던 학살사건의 상처와 기억은 그대로 소거되어 버린 것이다.

긴자의 부흥을 위해 “장사에 열심인 것이 국민의 의무”(p.56)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판잣집 주점을 열고 있는 노구치 부부를 “군인정신”이 충만한 “제도부흥의 제일선의 용사”(p.57)라 지칭하고, 이에 소극적인 자를 “비국민”(p.107)이라하며 이들은 다시 하늘의 별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노구치의 주점에 모인 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제국”과 “긴자”의 부흥, 그리고 이의 중심에 서 있는 노구치 부부를 동일시하며 만세삼창을 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긴자와 도쿄의 재건과 부흥을 새로운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보고, 대지진이 남긴 조선인 학살의 기억과 상처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그들의 기억에서 소거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긴자부흥』이라는 작품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문학자들이 남긴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기억도 이와 같이 애매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곧바로 우리들은 교바시(京橋)도 니혼바시(日本橋)도 간다(神田)도 아사쿠사(淺草)도 그리고 혼조(本所)·후카가와(深川)도 어제 하룻밤 사이에 그 태반이 소실되어 이제는 전 시내 전멸의 대참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놀랍고 두려운 보도를 들었다. 더욱이 계속하여 그것은 불령한 xx의 일단이 이 기회에 편승하여 기공할 계획을 수행하고자 하여 어떤 종류의 행동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커다란 천재가 초래한 참사를 한층 크게 만든 일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 그에 대해 각자 경계를 한층 엄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가 공공연히 전달되었다. 하룻밤의 무사함을 기뻐한 우리들은 한층 새로운, 그리고 더 한층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²³⁾

이글은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가노 사쿠지로(加能作次郎)가 쓴 「진재일기(震災日記)」라는 글인데, 9월 1일 점심을 먹기 직전의 지진 상황과 도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재의 상황,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난민의 행렬, 도쿄의 피해 상황과 문단인들의 안부에 대한 상념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지진이 이후 하루 밤이 지나고 전 시내가 전멸에 가까운 대참사

23) 加能作次郎(2002)『震災日記』『編年体大正文学全集』第一二卷、ゆまに書房、p.542. 초출지와 초출년은『文章俱樂部』(1923.10.)

를 맞이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불령한 조선인 일단’에 관한 소문을 매우 염려하는 문장으로 글을 맺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진 이후 하루가 지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염려와 안도감이 그대로 배어 있지만 실제 조선인이 ‘가공할 계획’을 실행하여 ‘참사를 한층 크게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그대로 전하며, ‘더 한층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이 실린 것은 이 유언비어의 실체와 조선인학살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글은 한편으로 간토대지진 당시 존재하였던 유언비어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조선인학살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애매화하거나 이를 희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인 나가타 히데오(長田秀雄)는 「대지진 회고」라는 글에서 간토대지진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거대 지진과 화재로 인해 온 도시가 파괴되어 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1년 후 전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 가는 도쿄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고 있다. 이 글에서 나가타는 “도쿄는 항상 우리나라 문화의 첨단이다. 5년의 시련시대를 거쳐 우리 도쿄 시민들이 만들어 낼 생활의 양식은 이윽고 새로운 일본 정신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풍경으로 탈바꿈해가는 도쿄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이를 부흥해가는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소설『긴자부흥』과 마찬가지로 대지진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는 인간의 강인한 모습, 이러한 부흥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본정신과 일본문화에 대한 간절한 기대에 주된 관심이 놓여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그리고 나서 연이어 조선인의 소동이 있었다. 평소 우리들의 현재 생활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격렬하였다.”²⁴⁾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간토대지진 당시에 있었던 유언비어를 단지 ‘조선인들의 소동’이라는 식으로 하나의 사실로서 인정하고 있다. 즉, 부당한 유언비어와 더불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조선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실제 사건처럼 희석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쿄의 시민들은 안전함을 박탈당하고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상 보았듯이, 간토대지진 이후 도쿄의 부흥과 재건에 대한 강렬한 회구를 보인 일본의 작가들은 실제 당시 존재하였던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의 기억을 언급하고 있어도 실제 이 유언비어의 부당성이나 조선인의 부당한 희생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희석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지진과 화재의 상흔과 파괴된 도시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도쿄를 부흥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강인한 정신을 강조하고 새로운 도시에 대해 구가하고 있더라도 이 과정에 가장 커다란 상처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인 학살사건은 기억에서 소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長田秀雄(2003)「大震回顧」『編年体大正文学全集』第一三卷, ゆまに書房, pp.539-540. 초출지와 초출년은 『中央公論』(1924.9)

5.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간토대지진 이후 일본문학자들은 당시 조선인에게 가해진 집단적인 폭력과 학살을 목도하고 에세이나 평론, 나아가 문학작품으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들 문학자의 반응은 간토대지진이 일어나고 조선인학살관련 보도금지가 해제된 직후부터 1924년에 집중적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 사건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인학살사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개별 작가나 작품이 아니라 이 당시 쓰인 일본문학자들의 글과 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23년 10월 시점이 되면 일본문학자들은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비평과 에세이를 다수 발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글에서는 일본인의 잔혹한 학살에 대해 메이지 시대 이후 현대 일본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선인학살사건을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간토대지진이라는 미증유의 대재난 속에서 연이어 일어난 학살사건에 관해 일본문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본 근대문명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일로 파악하고 당시 근대화를 서두르던 일본문화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을 형상화한 문학작품들은 이유 없이 조선인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분노’라는 시각에서 포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을 일본인이나 일본문화의 비도덕적인 추악함으로 규정짓고 있다. 나아가 약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일본인들의 폭력성을 엄정하게 비난하며, 유언비어의 부당성이나 타민족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작가들이 조선인학살사건을 자행한 일본인에 대해 분노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소수자를 학대한 일본문명에 대해 비판만 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긴자부흥』과 같이, 거대한 자연재해 이후에 도쿄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제도(帝都) 재건에 대한 희망을 주창하고 있는 문학작품에서는 오히려 유언비어에 대한 기술은 존재하지만 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기억은 소거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간토대지진 이후 도쿄의 부흥과 재건에 대한 강렬한 희구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작가들은 실제 당시 존재하였던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의 기억을 언급하고 있어도 실제 이 유언비어의 부당성이나 조선인의 참혹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사실을 희석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参考文献】

- 秋田雨雀(1925)『骸骨の舞跳』叢文閣、pp.27-28
- 芥川龍之介(1996)「大震雜記」, 琴秉洞編『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 2』綠蔭書房、p.45
- 江口渙(1923)「車中の出来事」『東京朝日新聞』
- 越中谷利一(1996)「一兵卒の震災手記」, 琴秉洞編『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 2』綠蔭書房、p.105
- 小川未明(2003)「思想の曙光に明けんとする大正一三年」『編年体大正文学全集』第一三卷、ゆまに書房、p.498
- 加能作次郎(2002)「震災日記」『編年体大正文学全集』第一二卷、ゆまに書房、p.542
- 鈴木淳(2016)『関東大震災』講談社、pp.173-184
- 長田秀雄(2003)「大正一二年を送りて大正一三年を迎ふる辞」『編年体大正文学全集』第一三卷、ゆまに書房、pp.495-97
- _____ (2003)「大震回顧」『編年体大正文学全集』第一三卷、ゆまに書房、pp.539-540
- 西崎雅夫(2016)『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記録』現代書館、p.1
- 萩原朔太郎(1996)「近日所感」, 琴秉洞編『朝鮮人虐殺に關する知識人の反應 2』綠蔭書房、p.285
- 水上瀧太郎(2012)『銀座復興』岩波書店、p.8
- 水野広徳(1923)「大杉殺害と軍人思想」『中央公論』、pp.65-66
- 森崎光子(2003)「佐藤春夫『魔鳥』論—朝鮮人虐殺事件との関連を中心に」『近代文学論創』第6卷、pp.1-17
- 山田昭次(2011)『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創史社、p.57
- 吉野作造(1923)「朝鮮人虐殺事件に就いて」『中央公論』、p.175
- 강덕상 지음, 김동수 박수철 옮김(2005)『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역사비평사, pp.205-307
- 강소영(2012)「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을 향한 시선-에구치칸(江口渙) 「차안에서 생긴 일(車中の出来事)」의 야마토다마시이(大和魂)」『일어일문학연구』제3권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pp.275-291
- 이상복(2018)「관동대지진과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숲 속」을 중심으로」『비교일본학』제42집, pp.293-308
- 이지형(2005)「관동대지진과 시마자키 도순(島崎藤村)-『아들에게 보내는 편지』(子に送る手紙)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제13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91-114
- 정병호·최가형 편저(2018)『일본의 재난문학과 문화』고려대 출판문화원, p.127
- 허석(2015)「근대일본문학에 나타난 자연재해와 그 폭력성의 연원에 대한 연-關東大地震과 朝鮮人虐殺事件을 中心으로」한국일본어문학회『일본어문학』제65집, pp.383-405
- 홍진희(1998)『관동보고서 관동대진재 조선인 대학살』나무와 숲, pp.97-168

논문투고일 : 2019년 07월 06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8월 07일
 2차 수정일 : 2019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8월 16일

 <要旨>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과 조선인학살 사건을 둘러싼 일본문학자의 인식 연구

조미경

간토대지진 이후 일본문학자들은 당시 조선인에게 가해진 폭력과 집단적인 학살을 앞에 두고 에세이나 평론, 나아가 문학작품으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들 문학자의 반응은 간토대지진이 일어나고 조선인학살관련 보도급지가 해제된 직후부터 1924년에 집중적으로 쓰였으며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 사건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인 학살사건과 관련한 일본문학자들의 비평과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1923년 10월 시점이 되면 일본문학자들은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비평과 에세이를 다수 발표하기 시작한다. 이 러한 글에서는 일본인의 잔혹한 학살에 대해 메이지 시대 이후 현대 일본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매우 비이성적인 비판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사건을 형상화한 문학작품들은 조선인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분노’라는 시각에서 포착하고 있었으며, 이를 일본인이나 일본문화의 비도덕적인 추악함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작가들이 조선인학살사건을 자행한 일본인에 대해 분노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소수자를 학대한 일본문명에 대해 비판만 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긴자부흥』과 같이 거대한 자연재해 이후에 도쿄의 부흥을 위한 희망을 주창하고 있는 문학작품에서는 오히려 유언비어에 대한 기술은 존재하지만 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기억은 소거되어 있다. 나아가 이들 작품에서는 실제 이 유언비어의 부당성이나 조선인의 참혹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사실을 희석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Study of the Japanese Writer's Perception of the 1923 Kanto Earthquake and the Korean Massacre

Cho, Mee-Kyoung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Japanese writers positively portrayed this incident with essays, criticism, and literary works in front of violence against the Korean people and massacres. The criticisms and works of Japanese writers related to the genocide of the Korean people were as follows.

First, in October 1923, Japanese writers began to publish a number of essays on the Korean massacre. In these writings, Japanese writers criticized the events of the brutal genocide of the Japanese in a very irrational manner, 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modern Japanese civilization since the Meiji era. Next, literary works that depicted the massacres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Kanto Earthquake were captured from the viewpoint of ‘anger’ about the violence on the Korean people, and they were defined as immoral ugliness of Japanese or Japanese culture.

However, Japanese writers were not angry or criticized for the Japanese who committed the Korean massacre. Especially, in the literary works which advocate hopes for the revival of Tokyo after a huge natural disaster, there is a description of the verbal voices, but the memories of the Korean massacre, which has a direct connection with it, are erased. Furthermore, these works dilute the historical facts about the unjustness of the rhetoric and the disastrous sacrifice of the Korean people.